

사우디 石油製品과 LPG의 輸出價格決定

— 大韓石油協會 企劃部 —

이 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정책 결정기관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민인 Abdulhady H. Taher 총재가 사우디의 석유제품 수출에 대한 견해를 International Herald Tribune紙에 發表한 내용이다. Taher 총재는 석유 제품을 현물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장기계약으로 구입하는 것이 안정공급면 등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記者註)

사우디의 새로운 수출용 정유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페트로민과 合作파트너들은 世界石油市場의 安定과 동향분석의 전망을 계속 실시중이다. 페트로민의 초기 石油製品들은 世界石油 需給 및 價格 결정에 아주 작은 요소 밖에 안되므로 거대한 세계 景氣 무대에 사우디가 취한 행동 또한 매우 작은 영향을 미쳐왔다.

사우디의 정제능력

현 페트로민의 수출용 정제시설 건설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몇가지 추정을 해보자. 1983년 전체 사우디 정제능력은 800千B/D 수준 정도로, 이는 사우디 국내 실제 소비물량보다 100千B/D 정도가 초과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5년 초에는 사우디 아라비아는 약 500千B/D의 추가 정제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즉 모빌社와 합작한 250千B/D 규모의 안부 정유공장은 이미 가동에 들어갔으며, 셀社와 합작한 250千B/D 규모의 정유공장도 1985년 1/4분기 중에 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이들 두 공장은

합작선들과 50대 50의 비율로 운영되므로, 페트로민 자체의 최대 이용 정제능력은 이 두 공장에서부터 겨우 250千B/D 정도이다.

이 물량은 1983년말 자유세계 전체 정제시설의 겨우 0.4% 정도에 해당한다. 안부와 쥬베일 소재 두 정유공장에서부터 출하되는 절반씩은 각각 모빌과 셀의 전세계적인 유통기구에 흡수 될 것이다.

또 다른 사우디의 새로운 325千B/D 규모의 Ribigh 소재 정유공장은 1985년 말경에 가동될 예정이다. 페트로라와 합작한 이 정유공장과 안부·쥬베일 정유공장의 총 정제능력은 825千B/D 규모로 이는 1983년말 자유세계 총 정제시설의 약 1.4% 정도이며, 사우디 국내시장용·정유시설을 모두 합쳐도 2.75% 정도이다.

사우디의 새로운 수출용 정유공장은 世界石油市場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수요패턴에 부합되게 설계되어,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등과 같은) 경질유 제품의 收率이 안부소재 정유공장은 약 79%이고, 쥬베일 공장은 약 73%이며, 레비공장은 약 58% 정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수출용 정유공장

들이 세계석유시장에 잘 적용될 것으로 보며, 사우디 자체 경제개발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새로이 가동되는 정제시설의 영향으로 가동초기단계에 있는 정제시설의 대규모적인 폐쇄는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낡은 정제시설의 합리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1983年末 이전 3년간에 이루어졌던 것과 같은 속도로 1986년말까지 정유공장 폐쇄가 계속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우디 내수용과 수출용 정제시설을 합친 총정제능력은 1986년말 기준으로 전자유세계의 3% 정도에 불과하다.

73년 세계시장에 첫 진출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사우디 최초의 본격적인 진출은 1973년 5월이었는데, 당시 사우디에게는 상당한 양이었던 원유를 몇몇 회사들과 직접 原油供給契約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그후 급속도로 국제석유시장 개입이 진전되어 수출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동·서 연안으로부터 輸出되던 Aramco의 生産分도 페트로민에 의해 판장되었다.

사우디가 늦게 시작한 LPG에 대한 상황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페트로민은 LPG 판매를 1978년에 시작하였는데, 1979년 수출량은 약 1백만톤 정도 이던 것이, 1983년에는 7백6십만톤이 되었다. 그러나 석유제품에 대한 상황은 다르다. 수출용 정제석유제품에 대한 페트로민의 참여는 소규모로 시작되었다. 즉 Jeddah정유공장과 Rao Tanura 정유공장에서 수출하는 제품은 사우디의 내수용을 충족한 후의 잉여제품들이었다.

사우디가 고려한 판매전략

페트로민이 석유제품 수출 증대를 위한 計劃을 수립할 때 사우디가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우디는 석유에 관한한 중추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사우디가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세계석유시장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우디 장기경제개발은 석유수출국들 중에서도 사우디의 독특한 방법으로 유한한 석유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에 달려 있으므로 石油化學 분야의 참여와 함께 石油精製産業에 투자하는

것은 사우디 경제개발과, 産業의 多樣化에 있어 자연적인 발전단계이다. 이들은 둘다 사우디 산업화 계획에 필수적인 요소들로 간주된다.

美國에 의해 주도되어온 세계경제는 長期的이고 심한 不況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다. 이 불황은 부분적으로는 에너지의 실재가격이 불가피하게 급등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구조적변화를 수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계석유수급균형에도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석유생산국이나 소비국은 공통적인 정책목표로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다년간 사우디 아라비아는 세계석유시장의 안정에 커다란 관심을 가졌다고 자부해 왔으며, 이는 원유와 LPG시장에서 모두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러한 온건적인(moderation) 정책이 석유제품 수출로 확장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世界 最大 原油輸出者 중의 하나인 페트로민은 안부와 쉐벨 소제 새로운 정유공장에서 1985년부터 수출될 최대 250千B/D의 석유제품에 대해 割引을 해줌으로 인한 원유가격구조의 피해를 원치 않을 것 같다.

시장지향적인 가격(market Orientated Pricing)이 정제 석유제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약하에 이동되는 거래물량에 대하여는 양자 모두 안정성과 단기전망 가능성이 요구되고 있다.

정제 석유제품에 대한 페트로민의 마케팅 전략은 주로 장기계약거래를 개발하는 쪽이 될 것이다. 현물 기준으로 판매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일 것이다.

판매가격의 결정방법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고려해 볼 때, 페트로민의 석유제품 수출가격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유용한 두가지 요소가 있다. 즉 원유의 정부공시가격과, 정통한 석유업계 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현물시장가격시세를 들 수 있으며 추가로, 生産国과 消費国間의 運賃率에 對한 統計的인 推定值도 고려할 수 있으며, 주요 유럽 석유소비국의 平均 製品 內需에 對한 통계적인 추정치도 이용할 수 있다.

페트로민은 구매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생각각아서는 대부분을 長期契約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미래의 가격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다.

이미 발표된 현물시장시세는 단지 과거의 자료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불행스럽게도 현물시장은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가격의 안정성과 단기전망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두가지는 사우디같은 수출국이나, 수입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잠재적인 거래선과의 몇차례 협상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未來 市場狀況은 최소한 短期的으로는 價格이 安定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先物契約을 하는 사람들과 투기업자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헷징수단(hedging device)이 될 수 있으나, 우리의 요구는 충족시키지 못한다.

현물시장가격시세를 되돌아 보면, 페트로민은 때로는 주요 조사기관(monitoring services)이 발표하는 시세 범위 外의 가격으로 거래하여 왔다는 것도 애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실은 주요 조사기관은 특별한 경우의 거래까지 포함시켜 정확히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비록 시장이 성숙된다 할지라도, 현물시장 가격은 실질적으로 현물시장에서 발생하는 去來의 왜곡된 표본에 근거를 두고 限界値(현재 주요 조사기관에서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래물량)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된 물량이 정기적으로 발표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현물시장거래가 전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으며, 그 물량이 전체거래의 몇%가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여러차례에 걸쳐 再 거래되는 물량을 몇번 중복해서 계산하는지를 알 방법도 없다.

價格決定 資料

정통한 석유업계 조사기관들에 의해 발표되는 현물제품가격은 전세계 석유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근거를 두고, 불가피하게 추정하고 있다고 결론

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는 이런 가격들이 구매자와 공급자의 단기전망을 집단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또 아직도 한계시장(marginal market : 조사기관에서 반영시키지 못하는 시장)으로 남아 있는 영역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적절한 기준으로 바꾸어서 발표한 현물시장가격(추정치)이 유용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페트로민이 장기계약 거래선에게 공급안정성과 가격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정제석유제품과 LPG의 수출용 장기계약가격을 결정하는데는 일정기간의 현물시장평균가격치는 한정적인 자료로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물시장의 가격지표들은 사우디가 새로운 정유공장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가동률을 유지하려 할 때, 시장에서 일어날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줄 지표(indicator)의 하나가 될 수 있으나, 페트로민의 장기계약가격을 결정하는 완전한 자료는 되지 못한다.

그러면 페트로민이 契約 代案(term alternative)을 가지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 페트로민이 정제석유제품과 LPG의 판매를 시작할 때, 그 당시 대부분의 판매 가격기준은 정부가 설정한 가격이었다. 이는 불안정한 현물시장가격 체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확고한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가격체제였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판매한 석유제품 물량은 1985년도에 판매하여야 할 물량에 비하면 소규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현안문제는 정부 수출가격(GEP)이나 시장관련 公示價를 정도 이상으로 채택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과거 사우디는 석유시장에서 다른 회사들이 판매한 것처럼, 정부수출가는 현물시장가격보다 때로는 높고, 때로는 낮았다.

현재 사우디가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점은 판매하여야 할 예상증가 물량을 제품이 실질시장가치를 반영하는 시장에서의 똑같은 수준으로 정부수출가격을 선택하는데 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實質 市場價格의 반영

페트로민의 판매계약에는, 구매자가 어떤 특정제품의 실제시장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政府輸出價格(GEP)이 반영하지 못할때에는 구매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단계적인 조치 조항은 판매자를 보호해 줄 것이며, 단계적인 조정 메커니즘이 설립됨으로써, 가격조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판매자에게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 전 석유제품에 대하여 정부고시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정부수출가가 적용되었던 석유제품들만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사우디의 새로운 수출용 정유공장에서 출하될 기타 제품들은 정부수출가격이나, 또는 페트로민 공시가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제품의 가격이라도 제품가의 최하한선은 생산제품의 가치이며 이는 또한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현물시세보다는 보다 지속성이 있는 시장의 제반 영향력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부연하면,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는 현물시장가격 지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가격이거나 정부수출가격이거나 또는 페트로민이 公示하는 가격이거나 간에, 가격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은 제품의 실질시장가치를 반영하는 일정한 범주 내에서 수시로 변할 것이다.

이러한 가격책정 방식은 이미 몇몇회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페트로민과 협상한 바 있는 회사에서는 매우 환영을 받아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합법적인 질문은, 「이러한 가격결정체제가 페트로민·제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장을 고무시킬 것인가」이다. 나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

우리의 수출용 정유공장에서 출하되는 제품들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고 일컬어지는 市場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므로 사우디 제품들은 공급과잉을 크게 부채질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다. 그들은 소량이며, 사우디 아라비아의 전체 석유생산과 수출량중 매우 적은 한 부분일 것이다. 우리는 국제석유거래에 필요 이상으로 물량을 추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長期계약이 바람직

1978년에서 1982년 사이에, 북서 유럽지역의 LPG 현물 평균가격은 133%나 상승하였다. 반면 페트로민의 장기계약가격은 동기간에 겨우 87%만이 상승하였을 뿐이다. 만약 과거 4년동안 사우디의 LPG생산량이 약 88% 증가하지 않았다면 LPG현물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현물시장 구매자와 비교해서 과거 6년동안 아라비안 라이트 원유를 장기계약으로 구매함으로써 가격면에서 이익이 있었던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을 페트로민의 정제석유제품 수출의 미래 고객들은 상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981년 이후 과거 3년간 사우디 원유를 현물시장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장기계약구매로 인한 약간의 불이익은 장기계약 구매로 인해 나타난 이익보다 지나치게 과장되어 평가되었다. 더우기 사우디 아라비아 원유를 장기계약에 의해 구입함으로써 인한 안정성에서 오는 이익과, 그 반대함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이 석유제품 구매에 대해서도 페트로민과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中長期展望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Petroleum Review誌 85. 1月號〉

가정에서 뿌린 정직
사회에서 꽃핀 신뢰